

1500만원 위스키 vs 3만원 견과류...설 선물도 '양극화'

광주신세계·롯데百貨 광주점 27일까지 판매...가격대별 다양하게 구성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1~3만원대 가성비 세트 할인·프로모션 진행

지역 유통업체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설 선물 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백화점 업계는 최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및 1·2인가구의 양극화 소비 추세를 반영해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가성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마련했고, 대형마트 및 온라인 이커머스 등에서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1~3만원대 가성비 선물세트를 내놨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2025 광주신세계 설맞이'를 주제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실속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로는 국내산 한우 1+등급 7가지 부위로 구성된 '한우비 프리미엄 한우 스페셜' (200만원)과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인 '맥컬란 디켄더 2022 릴리즈(1197만 2000원)', '페트루스 2017(1575만 5000원)' 등을 선보인다.

명절 선물로는 단골로 찾는 건강기능식품군에서도 '정관장 홍삼 천삼 20지(360만원)', '정관장 황진단천 노블라인(160만원)' 등을 준비했다. 가성비 높은 실속 선물세트로는 10만원 이하,

10만원대, 20만원대 등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샤인머스켓, 사과 혼합(8만 5000원)', '신세계 압소 한우 행복(16만원)', '셀렉트팜 사과, 배 혼합 만복(23만원)' 등이 있다.

이 밖에 육포, 멸치, 견해산물, 건과, 버섯, 전통주, 오일, 한과, 차, 발효국간, 홍삼, 건강기능식품 등 전통적이면서도 색다른 선물세트도 종류별로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6일 사전예약 기간부터 내세웠던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2025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개시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본판매 행사에서는 광주·전남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선물세트들을 프리미엄과 가성비 라인으로 나눠 선보인다.

우선 축산 선물세트로는 '함평천지한우 명가세트(75만원)', '고창한우 감사 1호 세트(53만원)' 등을 마련했다. 수산에서는 '영광법성포콜비 건(90만원)', '흑산도 홍어 GIFT' 등을, 농산 세트로는 '나주배 세트(18만원)', '장흥 백화고 명품세트(30만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 32호 강봉석 명인의 '도라지정 1호', 수산식품명인 제 5호 김정배 명인의 '명인 젓갈 프리미엄', 식품명인 제 37호 권기욱 명인의 '상촌전통장 해' 등 광주점에 입점해 있는 명인들의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가성비 선물세트로는 지역 대표 베이커리인 베베에르의 '쿠키세트(3만 9000원)', '마왕파이(3만원)'을, 보향떡집은 '떡국떡+인기떡 세트(2만 3000원)' 등을 준비했다.

광주점에서는 본판매 기간 중 구매금액의 5~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며, 일부 한우 및 화장품 선물세트의 경우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오늘도착'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 채널에서도 1~3만원대 가성비 상품들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 사전예약 기간 중 3만원 이하 견과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판매 기간 중 견과류 선물세트 품목을 50% 늘리고, 물량도 30% 확대했다. 김이나 양말 등으로 구성된 1만원 미만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3일까지 2025 설 빅세일 프로모션을 펼친다. 행사 기간중 알뜰 구매를 위한 별도 할인쿠폰을 매일 제공하며, 100여개의 명절 인기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매일 자정에 바뀌는



8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과일 선물세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200여개의 특가 상품들은 1~3만원대, 3~5만원대, 5~10만원대, 10만원 이상 등 품목들을 가격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이밖에도 11번가는 오는 10일까지 '설 선물 한가득 프로모션'을 열고, 명절 인기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올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새해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설 선물세트를 구성했다"며 "광주신세계를 찾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롯데마트 '내일농장' 프로젝트 개시

올해 150여개 상품 출시 계획

롯데마트와 슈퍼가 차세대 농업 프로젝트인 '내일농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내일농장은 인공지능(AI) 선별 과일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도 적절한 환경에서 재배된 스마트팜 농산물,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 신종 농산물 등 차세대 농업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을 내놓는 롯데마트와 슈퍼의 신규 프로젝트다.

내일농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세대 농업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9월부터 '내일농장 스마트팜 딸기(500g)'와 '내일농장 타이백 딸기(500g)' 등 4개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내로 40여개 품목, 150여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내일농장 상품이 과일, 채소, 곡물, 계란 등 전체 농산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연 롯데마트·슈퍼 신진1부문장은 "지난해까지는 고르지 않아도 맛있는 과일을 목표로 대형마트 중 가장 선도적으로 AI 선별 기술 도입에 힘써왔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차세대 농업 기술 기반의 농산물을 확대해 노동력 감소, 기후 변화 등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24, 대학생 MD서포터즈 '편슬랭스타' 2기 모집

24명 선정 3월부터 본격 활동

수료증·활동비·신상품 제공

이마트24가 오는 19일까지 대학생 상품기획자(MD) 서포터즈 '편슬랭 스타(편스타)' 2기를 모집한다.

이마트24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학생 MD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것으로, 편의점의 주요 구매층인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에게 편의점MD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은 이마트24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프

로필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자유양식의 프로필 또는 포트폴리오를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편스타 2기 모집 인원은 24명으로 선정 후 3개월 간 MD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4일 개별 연락을 통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마트24 편스타 2기에 선발되면 오는 2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편스타 2기에 선발된 인원들은 편의점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현직MD의 멘토링, 상품 제조 공장 견학 등을 통해 편의점 MD직무를 경

험할 수 있다.

또 편스타2기가 활동하는 3개월 동안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마트24의 차별화 상품 리뷰 미션 수행, 매일 주어지는 임무에 적합한 신상품 아이디어 기획 및 발표, 정기 모임을 통한 활동 리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스타2기 활동을 마치게 되면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 이마트24 신상품 등이 제공된다. 더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최우수 서포터즈 1팀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이어간다

15일까지 파격 할인 한우·고구마 반값 등

홈플러스가 오는 15일까지 파격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인공지능(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AI 물가안정 주말특가'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사진>



우선 AI 물가안정 프로젝트에서는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 8대 카드(신한·삼성·롯데·농협·비씨·우리·씨

티·광주)로 결제시 '딸기' 전품목을 각각 5000원 할인하며, '12Brix 맞난이 사과(1.5kg)'은 3000원 할인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를 대상으로는 '산지 그대로 대파'를 기존보다 2000원 저렴하게 제공하며, '농협산심우' 전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50%, '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은 40%, '호박·꿀 고구마'는 50% 할인 판매한다.

이 밖에도 '특란(30구·1인 2판 한정)'은 마이홈플러스 회원으로 농할 쿠폰 적용 시 20% 할인하며, '농심 스낵(6종)'과 '봉지라면 멀티팩(7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특히 오는 10~12일 주말동안만 진행되는 'AI 물가안정 주말특가' 기간에는 8대 카드 결제 시 '새벽딸기(500g)'를 5000원 할인하고, '호주정정우 척아이롤(100g)'은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반값에 판매한다. 또 '해동 오징어', '유명산지 시금치', '산지 그대로 제주 무' 등 각종 농·수산물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고객들께 AI를 활용한 할인 행사 등 합리적인 장보기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